



미 증시, 중앙은행 속도조절 기대감 부각되며 상승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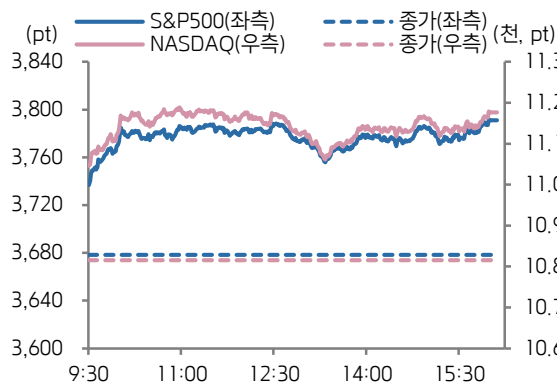
4 일(화) 미국 증시는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도, 호주 중앙은행의 예상보다 낮은 금리 인상 및 미국 구인건수 둔화에 따른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 등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 마감 (다우 +2.8%, S&P500 +3.06%, 나스닥 +3.34%)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졌으나 영향은 제한적.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는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데 한동안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로 인해 추세를 밀도는 성장기를 수반할 것”, “최근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하락했으나 식품, 주택 등 사람들이 주목하는 상품 가격의 변동이 미래 인플레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고용시장은 매우 타이트하고 이직의 증가가 임금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성장둔화로 인해 근로자보다 채용공고가 더 많은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언급.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유발하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지기 전에 고용시장의 둔화될 여지가 있으며 실업률은 약 4.5%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

미국 8 월 JOLTs 구인건수는 1,001 만건(예상치 1,078 만건, 전월치 1,123 만건) 증가 기록하며 전월대비 110 만건 하락,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최대 하락폭. 헬스케어, 사회보장, 서비스 소매판매 부문 등에서 채용공고가 큰폭 감소한 것에 기인. 지표 발표 이후 연준의 공격적 긴축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그동안 견고했던 고용시장에 반영되었다고 해석되며 위험자산 선호심리 부각. 한편, 유로존 8 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43.3%(예상치 43.2%, 전월치 38.0%) 증가하며 컨센서스 소폭 상회, 전월대비로는 5.0%(예상치 5.0%, 전월치 4.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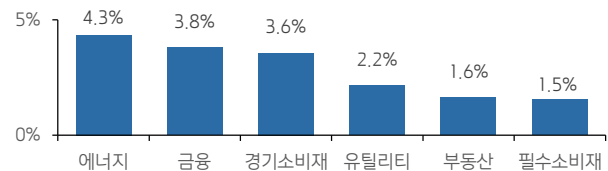
전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4.3%), 금융(+3.8%), 경기소비재(+3.6%) 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필수소비재(+1.5%), 부동산(+1.6%), 유틸리티(+2.2%)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작았음. 애플(2.56%), 알파벳(3.04%), 아마존(4.5%), 메타(1.2%) 등 주요 시총 상위주들 모두 반등에 성공. OPEC+ 회담을 앞두고 하루 최대 200 만 배럴의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유가 급등 및 에너지업종 강세. 일론 머스크가 철회했던 트위터(22.2%) 인수를 기존 조건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트위터는 급등, 테슬라(2.9%)는 상승폭 축소 마감.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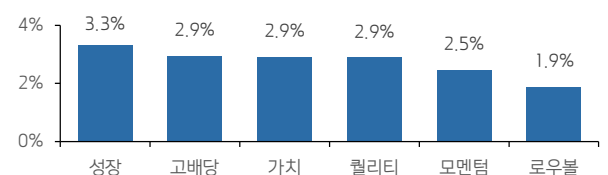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790.93	+3.06%	USD/KRW	1,426.29	-1.09%
NASDAQ	11,176.41	+3.34%	달러 지수	110.20	-1.38%
다우	30,316.32	+2.8%	EUR/USD	1.00	-0.02%
VIX	29.07	-3.42%	USD/CNH	7.04	-0.01%
러셀 2000	1,775.77	+3.91%	USD/JPY	144.22	+0.06%
필라. 반도체	2,500.11	+4.46%	채권시장		
다우 운송	12,918.37	+3.64%	국고채 3년	4.070	-11.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990	-9.2bp
Eurostoxx50	3,484.48	+4.26%	미국 국채 2년	4.093	-2.1bp
MSCI 전세계 지수	582.14	+3.22%	미국 국채 10년	3.633	-0.6bp
MSCI DM 지수	2,511.72	+3.37%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893.65	+2%	WTI	86.52	+3.46%
MSCI 한국 ETF	50.70	+4.71%	금	1730.5	+1.6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4.71%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3.27%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1.3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415.7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증시 2 거래일 연속 급등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2.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외국인 수급 개선 가능성 3. 약재 피크아웃 인식등으로 급등했던 반도체주들의 주가 지속성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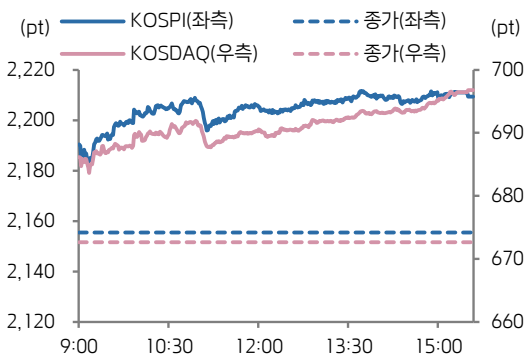
시장이나 중앙은행이 고 인플레이션 고착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곳곳에서 고강도 긴축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 지난달 영란은행(BOE)의 QT 지연 및 한시적인 QE 도입을 통한 영국 채권 및 외환시장 안정 조치에 이어, 4 일 호주중앙은행(RBA)도 단기간 큰 폭의 연속적인 인상(4 회연속 50 인상)을 이유로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25bp 금리인상을 단행한 상황. 이는 중앙은행들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하면서도, 과도한 긴축에 따른 금리 급등, 환율 급변 등을 막기 위한 금융안정도 고려하기 시작했음을 시사.

현재 시장에서도 연준 역시 본격적인 정책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속도 조절을 기대하면서 이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더 나아가, 연준의 연속적인 자이언트 인상에 정당성을 부여했던 것은 탄탄한 고용 데이터였지만, 4 일 발표된 8 월 구인건수(1,000 만건)가 컨센(1,077 만건, 7 월 1,177 만건)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 이와 연장선 상에서 7 일 예정된 미국의 9 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25.0 만건, 전월 31.5 만건), 실업률(3.7%, 전월 3.75) 등 고용지표의 부진하게 나올 시에는 시장은 "Bad news is Good news"로 받아들일 전망.

물론 11 월 75bp 인상 확률이 67%대로 50bp 인상 전망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금일 밤 OPEC+ 회담에서도 최대 200 만 배럴 감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 인플레이션, 긴축을 둘러싼 매크로 환경이 빠르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지만,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는 만큼, 고강도 긴축이라는 약재를 지속적으로 주가에 반영하기 보다는 중앙은행의 정책 유연성을 포함한 여타 재료들에서 출현할 수 있는 업사이드 리스크에 대비하는 전략이 현시점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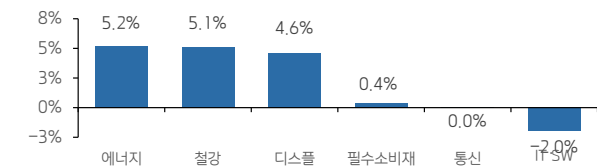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연휴기간 동안의 대외 호재 속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급반등(코스피 +2.5%, 코스닥 +3.6%). 금일에도 중앙은행의 속도조절 기대감에서 기인한 미국 증시의 연속적인 주가 급등 효과, 역외 원/달러 환율 급락(-10 원) 등이 외국인 수급 여건을 개선시키면서 상승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업종 관점에서는 전일 삼성전자 등 반도체들이 동반 급등한 배경도 실적 부진, 투자 축소 등 약재의 피크아웃 인식으로 급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시장 의견이 분분한 만큼 금일에도 반도체주들의 주가 변화도 주목해볼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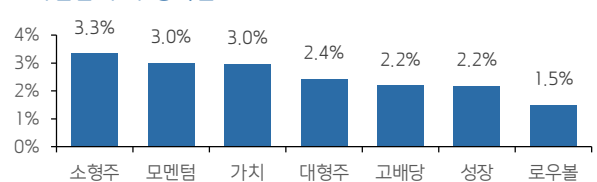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며,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